

시즌6
제8차

| 국어는 이감 |

이감 국어

모의고사

예비평가 지문 분석



[2021학년도 시즌6 제8차 예비평가 지문 분석]

[16~21] 인문 융합(주제 통합형)

: 동서양의 악의 기원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인문 - 철학 - 동양 철학

정통 유학, 천리, 순자, 본성, 작위, 성, 정, 욕, 예법, 사려, 칸트, 소질, 동물성, 인간성, 인격성, 성향, 자기애, 동기의 왜곡, 동기의 전도

* (가) 지문 분석

문단1 : '인간 본성'에 대한 순자의 입장

1) 정통 유학에서 하늘의 이치인 천리(天理)는 인간에게 도덕적 가치를 제공하는 근원으로, 천리를 부여받은 인간의 본성은 선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 '정통 유학'의 입장이다. 근원인 '천리'가 선한 만큼 인간의 본성 역시 선하다는, '성선설'에 해당하는 입장이겠다.

2) 그러나 이런 주류적 경향[→ 인간의 본성을 선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과 달리 순자는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악(惡)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 반대편에 선 '순자'의 입장이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악이 발생한다'는 것이 오히려 보이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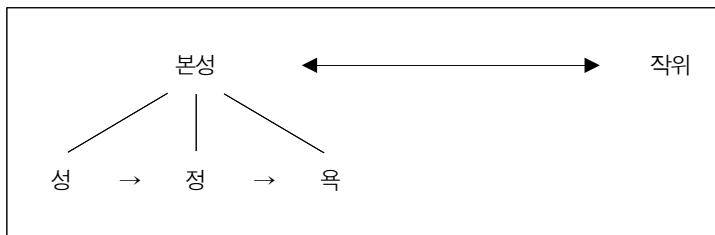
문단2 : 순자의 개념들

1) 순자는 선천적으로 갖는 다듬어지지 않은 바탕을 본성이라고 하여, 본성에서 벗어난 인간의 의지적인 행위인 작위(作爲)와 구별하였다.

⇒ 일단 '본성'과 '작위'를 구별하고

2) 순자에게 있어 본성은 다시 그 양태(= 사물이 존재하는 모양이나 형편)에 따라 '성(性)', '정(情)', '욕(欲)'으로 세분화된다. 『정』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등의 감각 기관의 생물학적 기능을 말한다[→ 감각 능력 같은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성'에서 나오는 『정』은 감각 기관이 외부와 접촉하여 생겨나는 좋고 싫음의 정서이며[→ '쾌'와 '불쾌'로 대별되는 감정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정'에 근거한 반응인 『욕』은 좋아하는 것을 얻으려 하고 싫은 것을 멀리하려는 욕구를 말한다.

⇒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이런 개념들이겠다.



문단3 : '욕'과 '악'의 관계

1) 순자에 의하면, 사람들이 '성'을 따르고 '정'을 좇으면 그 결과 '욕'이 작용하여 이익을 탐내고 서로 다투게 되는데, 여기서 악이 발생할 수 있다.

[팩트 짚기] 이후 상술하게 될 내용의 선제적 요약이다.

2) '성'과 '정'은 가치 중립적인(= 어떤 가치관이나 태도에도 치우치지 않는) 성격을 띠고 이익을 차지하기 위한 다름은 '욕'으로부터 발생하지만, '욕'은 '성'과 '정'에 기반한 것[→ '욕'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을 전제로 하는 욕구이므로]이므로 순자는 악이 사람의 본성에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 정리하면 이렇다.

'성'과 '정'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악은 '욕'에서 발생한다.

↓

'욕' 자체는 '성'과 '정'에 기반한다.

↓

'성', '정', '욕'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점에서,
악은 인간의 본성에서 발생한다.

⇒ 결국 직접적으로 악이 발생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인 '욕' 때문인데, 그렇다면 '욕'이 악의 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필연적인가?

3) 그러나 순자가 사람의 본성인 '욕' 자체를 악하다고 여긴 것은 아니다. '욕'은 모든 사람이 타고난 것으로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발현될 수밖에 없으며 인위적으로 완전히 제거될 수도 없다.

⇒ '욕' 자체는 인간의 본성이므로 완전히 제거될 수도 없고 반드시 악한 것도 아니란다.

4) 악은 '욕'으로 인해 생겨나는 결과의 한 양상이다. 이익을 향한 욕망의 추구가 남을 해치고 상하게 하여 사회적 혼란이 생기고 예의(禮義)가 없어지는데, 이렇게 예의를 잃은 사회적 혼란 상태가 곧 악인 것이다.

⇒ 악은 '욕'으로 인한 '하나의' 결과일 뿐이란다.

[주목] 따라서 '악'은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한 것은 맞지만 결과적으로 드러난 '사회적 혼란 상태'를 의미하게 된다.

문단4 : '예법'과 '사려'를 통한 '욕'의 조절

1) 순자는 '욕'을 제거할 수는 없지만 이를 조절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았다. '욕'의 조절은 성인이 만들어 놓은 도덕 원리인 예법(禮法)의 학습에 의해 가능하다. 예법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성인이 생각을 거듭하고 실천적 행위를 반복하여 인위적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작위로써 만들어 낸 규범[→ 문단 2-1)]이다.

⇒ 따라서 '예법'은 '본성'에서 벗어나는 규범이다. 성인들이 만들어 놓은 '예법'에 근거하여

2) 예법을 배운 사람들이 '정'이 드러난 것에 대해 사유하는 능력인 『사려(思慮)』를 하고, 이것이 악을 막기 위한 의지적인 행위로 이어지면 '욕'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욕'을 제어하는 작위가 이루어질 때마다 사려의 능력은 더욱 향상되며, 인[→ 사려]를 통해 실천적 행위가 무수히 반복되면 일반 백성도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 성인들이 만들어 놓은 '예법'에 근거하여, '사려'를 거듭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거듭하게 되면 다시 '사려'가 향상되고, 그런 애기가 되겠다.

* (나) 지문 분석

문단1 : '인간 본성'에 대한 칸트의 입장

칸트는 인간의 본성에 선의 소질과 악의 성향이 함께 존재한다고 보았지만, 실제 악은 인간의 자율적인 선택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악의 문제는 개인의 책임 문제로 귀결된다고 보았다.

⇒ 본성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개인이 선택한 결과인 만큼, 결국 그 개인의 책임이라고 본 게다.

문단2 : '선의 소질'과 '악의 성향'

1) 그는 어떤 유기체를 목적에 맞게 발달하게 해 주는 타고난 성질을 소질이라고 보고, ...

⇒ 모든 유기체는 '소질'이라는 것을 타고나는데

2) 인간이 선천적으로 갖는 소질은 동물성, 인간성, 인격성의 세 가지라고 보았다. 동물성은 인간 안의 동물적 자기애로 자기 보존, 종족 번식을 목적으로 하고, 인간성은 인간으로서의 자기애로 타인과

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고양하도록 이끈다. 자기애의 소질[→ ‘동물성’과 ‘인간성’]과 달리 **인격성**은 도덕 법칙을 존중하고 이를 내면의 동기로 수용하는 능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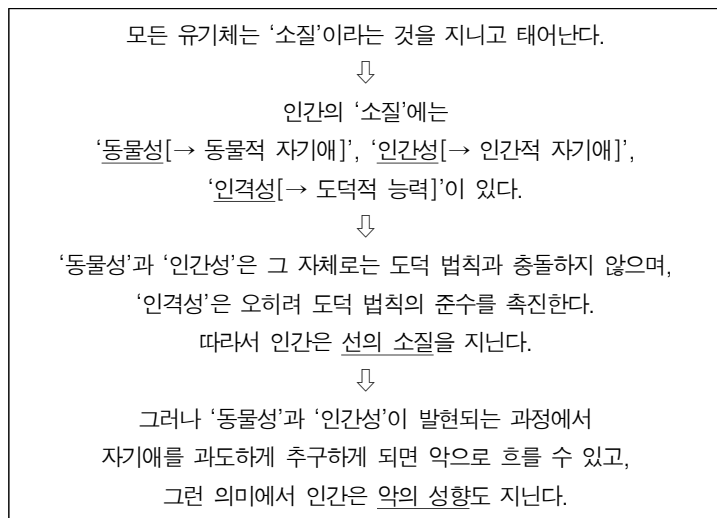
⇒ 인간이 지니고 태어나는 ‘소질’은 이렇게 세 가지다. 아무래도 ‘인격성’이 가장 특별해 보이는데

3) 동물성과 인간성은 인간이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소질이므로 그 자체가 도덕 법칙과 충돌하는 것은 아니며 / 인격성은 도덕 법칙의 준수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 칸트는 인간에게 근원적으로 선의 소질이 있다고 주장한다.

⇒ 그중 둘은 생존의 본능 같은 것이므로 선과 관련이 없지만, 나머지 하나는 오히려 인간을 선으로 이끈다. 따라서 인간은 ‘선의 소질’을 지니고 태어난다고 볼 수 있겠다.

4) 그런데 자기애가 발현되는 과정[→ ‘동물성’과 ‘인간성’이 발현되는 과정]에서 동물적 욕망[→ 자기 보존이나 종족 번식과 같은]이나 경쟁심[→ 타인과의 경쟁]에 의해 자기애의 욕구를 과도하게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는데, / 이는 인간에게 악으로 흐를 가능성인 악의 성향이 내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 그런데 자기애와 관련된 두 가지 소질[→ ‘동물성’과 ‘인간성’]이 발현되는 과정에서 자기애를 과도하게 추구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악의 성향’도 지니고 태어난다.



문단3 : ‘동기의 왜곡’과 ‘악’

1) 칸트에 따르면, 선과 악의 판별에서 중요한 것은 표면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를 일으킨 동기(=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이다. 도덕 법칙을 옳다고 여겨서 이를 따르려는 선한 동기로부터 나온 행위라야 도덕적으로 선하다.

⇒ 불행한 사람을 도운다고 해서 행위 자체가 선하거나 악하다고 할 수 없다. 그 행위의 동기가 선해야 한다는 얘기다.

2) 그런데 자기애의 욕구가 과도하면[→ ‘동물성’이나 ‘인간성’에 의한 이기심이 지나치면] 인간 내면에서는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의지가 약해지거나 **동기의 왜곡**이 일어나 악이 초래되는데, 이것은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른 것이다.

⇒ 인간이 타고나는 두 가지 소질에서 악이 초래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다. 바로 ‘자기애의 욕구’가 ‘동기의 왜곡’을 일으킬 수 있고, 이로 인해 ‘악’이 초래된단다.

[주목] 중요한 건 이렇게 ‘자기애’의 욕구가 과도해지는 것은 결국 개인의 선택에 의한, 개인의 책임이라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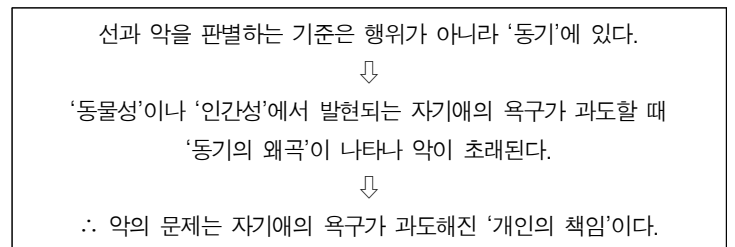
3) 어떤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서는 선한 동기가 행위의 충분한 동기가 되지 못하고 자기애에서 발생한 이기심이 추가적인 동기로 끼어들 수 있다. 이 경우 동기의 왜곡은 동기가 불순해진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칸트는, 선한 동기를 지니고 있음에도 의지가 박약해서 도덕적 행위를 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동기가 불순한 사람을 더 악하다고 보았다.

⇒ 선한 동기에 의한 행위라야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인데, 그 동기에 악한 동기가 끼어들어 불순해지면 동기의 왜곡이 발생한다. 그렇다. 칸트에게 있어 선한 행위의 판단 기준은 결과가 아니라 그 동기였다.

4) 동기의 왜곡의 또 다른 형태로 **동기의 전도**(= 차례, 위치, 이치, 가치관 따위가 뒤바뀌어 원래와 달리 거꾸로 됨)가 일어나기도 한다. 동기의 전도는 오로지 이기심이 도덕적 행위의 동기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자기애를 도덕적 행위의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애를 충족시켜 줄 때만 도덕적 행위를 한다. 가령, 어떤 악한 사람은 자신의 사회적 평판을 높일 필요가 있을 때에만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

⇒ 더 나아가 오로지 이기심만이 동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 정리하면 이렇다.



문단4 : 악과 개인의 책임

칸트의 견해에 따르면 자기애의 소질[→ ‘동물성’이나 ‘인간성’]이 과도하게 발현되는 과정에서 악의 성향이 작용하므로 인간의 본성에 악의 성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문단2에서 확인했던 바다.]. 그러나 칸트는 악이 초래되고 악의 정도가 심해지는 과정에서 각 개인의 자율적 선택이 개입하기 때문에 악한 행위를 한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았다.

⇒ 인간의 본성에 악의 성향이 내재돼 있지만,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므로, 악한 행위에 대해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겠다.

[22~26] 현대시 : (가) 서정주, 「침향」

* 작품 평가

질마재 사람들이 '침향'을 만드는 과정과 이유를 이야기처럼 쉽고 친근하게 풀어서 말하고 있는 작품이다. 생소한 한자어가 섞여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표현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서, 시가 말하려는 바를 잘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차분하게 읽으면서 질마재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상상해 보도록 하자.

* 작품 분석

침향(沈香)을 만들려는 이들은, 산골 물이 바다를 만나러 흘러내려 가다가 바로 파악[→ 강조의 의미] 그 바닷물과 만나는 언저리에 굵직굵직한 참나무 토막들을 잠겨[→ 잠기도록 해서] 넣어 둡니다. 침향은, 물론 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이 잠근[→ 잠겨 있는] 참나무 토막들을 다시 건져 말려서 빼개어 쓰는 겁니다만, 아무리 짧아도 2~3백 년은 수저(水底, 물의 아래)에 가라앉아 있는 것이라야 향내가 제대로 나기 비롯한다 합니다. 천 년쯤 썩 잠긴 것은 냄새가 더 좋습시요.

⇒ 참나무 토막이 침향으로 만들어지는 공간[→ '산골 물이~언저리']과 완성되는데 걸리는 시간[→ '아무리 짧아도 2~3백 년']에 대해 소개하듯 말하고 있다. 침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시상을 열면서 침향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수저에 가라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은 침향의 향기가 인위적인 공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산골 물'과 '바닷물'이 뒤섞이는 그 반복의 시간을 거치며 만들어지는 것임을 나타낸다. 아름다운 향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마주침과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뒤따르는 시행을 보자.

그러니, 질마재[→ 서정주의 고향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 이름] 사람들이 침향을 만들려고 참나무 토막들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내다가 육수(陸水, 육지에 있는 물)와 조류(潮流, 밀물과 썰물의 흐름이 있는 바닷물)가 합수(合水)치는 속에 집어넣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나 자기들 아들딸이나 손자 손녀들이 건져서 쓰려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먼 미래의 누군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후대(後代)들을 위해섭니다.

⇒ 침향은 '육수와 조류가 합수치는 속'에서 만들어진단다. '육수'와 '조류'를 각각 이질적인 두 공간[→ 땅과 바다]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면, 침향은 이질적인 두 대상이 마주치는 곳에서 만들어진다는 뜻이겠다. 그러므로 '침향은 서로 다른 것이 만나 만들어진 아름다움을 뜻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침향을 만드는 이유는 '누군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후대'를 위해서이다. 이를 통해 '침향'이 오랜 시간의 간극을 가로질러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 주는 매개임을 알 수 있다. '질마재 사람들'은 이질적인 것의 마주침을 통해 아름다움을 창조해낼 뿐 아니라, 오랜 시간의 간극을 가로질러 그 아름다움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것을 넣는 이[→ 질마재 사람들]와 꺼내 쓰는 사람[→ 훨씬 더 먼 미래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후대들] 사이의 수백 수천 년은 이 침향 내음새 꼬옥 그대로 바짝 가까이 그리운 것일 뿐, 따분할 것도, 아득할 것도, 너절할 것도, 허전할 것도 없습니다.

⇒ '넣는 이'와 '꺼내 쓰는 사람' 사이에는 '수백 수천 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이 있지만, '침향 내음새'는 그 시간의 간극을 아주 가까운 것으로, 그리운 시간으로 만든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긴 시간은 '따분할 것도, 아득할 것도, 너절할 것도, 허전할 것도 없'는 시간이다.

⇒ 침향이라는 사물을 매개체로 선대 사람들과 후대 사람들이 이어진다. 자기 이익에만 매몰되어 있는 오늘날의 사람들과는 사뭇 다른,

긴 시간을 뛰어넘은 질마재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는 경건함마저 느낄 수 있겠다.

⇒ 시인은 이런 질마재 사람들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현대인들이 그들의 마음과 가치관을 잃지 않고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하는 듯하다. 시에 표면적으로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과거 질마재 사람들의 행위와 마음을 강조함으로써 현대인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것이다.

이 감

[27~30] 과학 : DNA 메틸화와 발생계 이론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과학 - 생물학 - 후성 유전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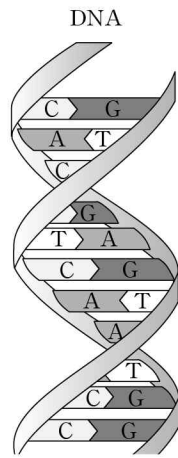
DNA, 형질, 유전자, 복제자 이론, 진화, 변이, 자연 선택, 발생계 이론, 발생, 발생 자원, 후성 유전학, DNA 메틸화, 프로모터, RNA 폴리머레이스, 메틸기 전달 효소, 사이토신, 메틸기, 5-메틸 사이토신, 탈메틸화, 수동적 탈메틸화, 능동적 탈메틸화, 탈메틸화 효소, 성 호르몬 생성 유전자

* 지문 분석

문단1 : ‘복제자 이론’과 ‘발생계 이론’

1) 염기들의 서열 형태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에서

⇒ DNA는 아데닌(A), 티민(T), 사이토신(C), 구아닌(G)이라는 염기들의 배열로 이루어지는데,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일종의 설계도다. 그림으로 보고 가자.



2) 개체의 형질을 결정하는 특정 부분 서열들 각각을 유전자라 한다.

⇒ DNA를 이루는 특정 부분들을 ‘유전자’라 하는데, 이것이 개체의 외모, 성격 등의 형질을 결정한다는 얘기가.

3) ‘복제자 이론’에 따르면 진화를 결정짓는 근본 요인은 유전자에 있다.

⇒ 한마디로 ‘복제자 이론’은 ‘유전자’로 진화를 설명하는 입장이다.

4) 유전자의 염기 서열 변화인 변이에 의해 개체의 형질이 변하고, 그 형질이 생존에 유리할 경우 해당 형질을 지닌 개체들이 후대에 더 많이 살아남는데, 이러한 자연 선택은 결국 유전자 변이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가령 목 길이를 결정하는 유전자의 염기 서열 변화에 의해 목이 긴 기린이 처음으로 태어났다고 하자. ‘목이 긴 기린’은 높은 나무의 나뭇잎까지 먹을 수 있으니 ‘목이 짧은 기린’에 비해 생존에 유리하여 후대에 더 많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주목] 따라서 ‘자연 선택’은 결국 유전자의 변이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게 바로 ‘복제자 이론’의 주장이다.

5) 그런데 최근 후성 유전학의 연구 성과들에 근거하여, 유전자의 염기 서열이 변하지 않더라도(→ 유전자 변이에 의하지 않더라도) 발생계의 변화에 의해 진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발생계 이론’이 등장하였다.

[맥락 짚기] 진화를 새로운 차원에서 설명하는 입장의 등장이다.

문단2 : ‘후성 유전학’과 ‘발생계 이론’

1) 발생계란 수정란이 개체가 되는 발생의 과정에서 형질에 영향을 미치는, 무수히 많은 발생 자원들의 총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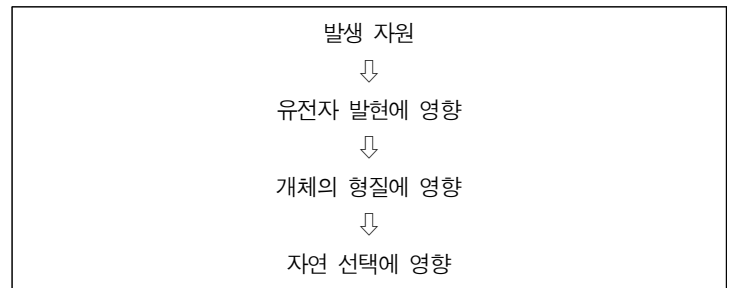
⇒ ‘발생’은 어떤 생물이 단순한 수정란 상태에서 세포의 증식, 분화, 형태 형성 따위를 거쳐 복잡한 개체가 되는 과정을 말한다. 느낌 잡기는 어렵지 않다.

2) 그리고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발현이 발생계에 의해 조절되는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을 후성 유전학이라 한다.

[주목] ‘복제자 이론’이 유전자의 변이로 인해 그 발현의 결과인 ‘형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통해 진화를 설명했다면, ‘발생계 이론’은 유전자의 발현 자체가 발생계에 의해 조절되는 현상에 주목하려나 보다. 그렇다면 진화의 양상 역시 발생계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겠다.

3) 발생계 이론에 따르면 발생 자원들도 자연 선택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므로 진화를 유전자로만 환원하여 설명하는 것(→ 복제자 이론)은 적절하지 않다.

⇒ ‘유전자 변이’뿐만 아니라 ‘발생 자원’ 역시 진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발생 자원’이 진화에 영향을 주는 과정을 떠올리면 이렇겠다.



4) 후성 유전학에서는 이(→ 발생 자원이 진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를 뒷받침할 여러 사례들을 제시하는데, DNA 메틸화가 대표적인 현상이다.

⇒ ‘DNA 메틸화’는 발생 자원이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중 하나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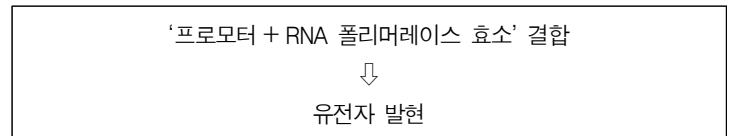
문단3 : DNA 메틸화

1) DNA 메틸화는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현상이다.

⇒ DNA 메틸화는 ‘발생계’에 의한 현상이다. 염기 서열 변화인 ‘유전자 변이’에 의해 개체의 형질이 변하는 것과 구분하면서 이해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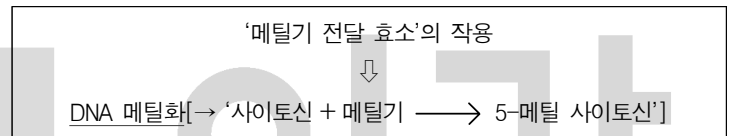
2) 보통 유전자의 발현은 유전자의 서열에서 앞쪽 부위인 프로모터에 RNA 폴리머레이스라는 효소가 결합함으로써 시작된다.

⇒ 일반적인 유전자 발현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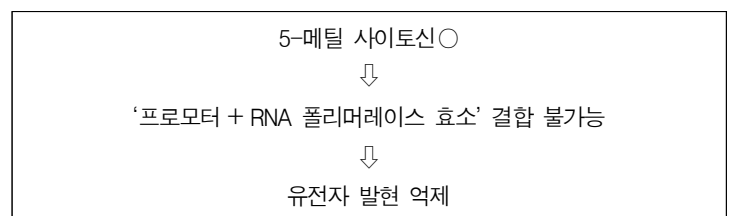
3) 그런데 메틸기 전달 효소가 프로모터를 구성하는 염기들 중 사이토신에 메틸기를 결합시켜 5-메틸 사이토신을 형성하는, DNA 메틸화가 나타날 수 있다.

⇒ ‘DNA 메틸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4) 그렇게 되면 프로모터와 RNA 폴리머레이스 사이의 결합이 불가능해져서 유전자의 발현이 억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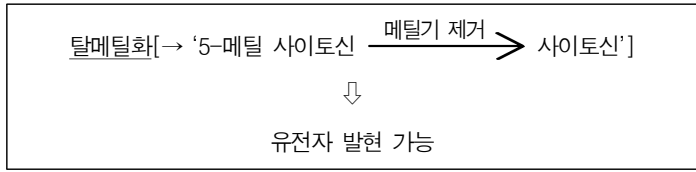
⇒ ‘DNA 메틸화’의 결과겠다. 결국 비유하자면 ‘DNA 메틸화’는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스위치’를 끄는 셈이다. 스위치를 끄면 유전자의 발현이 억제되고



문단4 : 탈메틸화

- 1) 이러한 억제[→ DNA 메틸화에 의한 유전자 발현 억제]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어서 5-메틸 사이토신에서 메틸기가 제거되는 탈메틸화가 일어나면 다시 해당 유전자가 발현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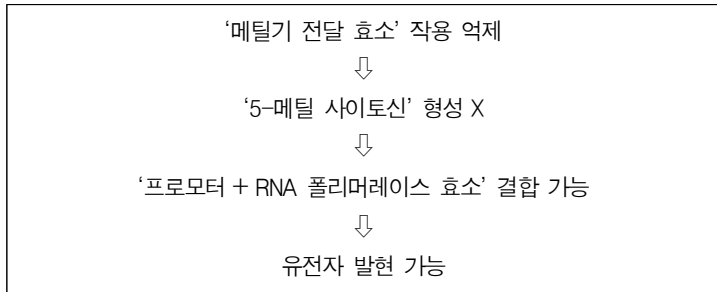
⇒ 그런데 다시 스위치를 켜면 유전자의 발현이 가능해지는 게 다. 즉 메틸기는 언제든 분리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 2) 탈메틸화는 수동적 탈메틸화와 능동적 탈메틸화로 구분된다. 수동적 탈메틸화는 5-메틸 사이토신을 가지는 유전자가 복제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이유로 메틸기 전달 효소의 작용이 억제되어서 자식 세포에 전달된 유전자에 5-메틸 사이토신이 형성되지 않는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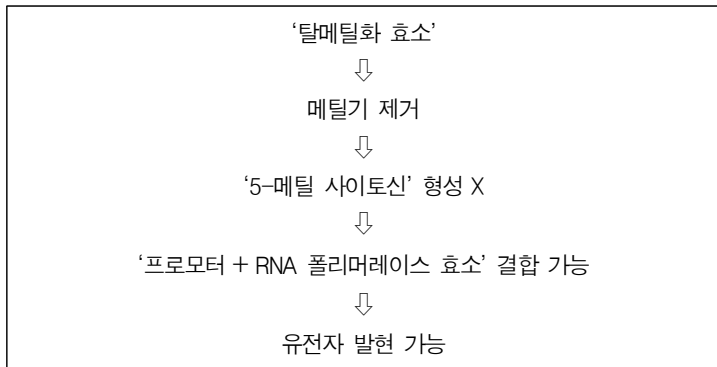
[주목] 원래는 자식 세포의 '부모 세포의 메틸화되어 있는 자리'와 똑같은 자리에서 메틸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즉 메틸화는 복제 과정에서 전달된다. 그런데

⇒ '수동적 탈메틸화'가 이루어지면 '메틸기 전달 효소'의 작용이 억제되어서 메틸화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대략 다음과 같은 과정을 떠올려야겠다.



- 3) 한편 발현이 억제되어 있던 유전자가 여러 종류의 탈메틸화 효소에 의해 탈메틸화되기도 하는데, 이를 능동적 탈메틸화라고 한다.

⇒ 그렇단다. 둘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다.



- 4) 능동적 탈메틸화는 성 호르몬 생성 유전자처럼, 처음에는 억제되어 있다가 생애의 특정 시점에서야 비로소 발현되는 유전자에서 일어난다.

⇒ 예를 들어 '성 호르몬 생성 유전자'의 경우 DNA 메틸화로 인해 발현이 억제되어 있다가 '특정 시점'이 되어야 탈메틸화로 인해 비로소 발현될 수 있단다.

[주목] 이런 결론도 내릴 수 있어야겠다. '수동적 탈메틸화'가 세포 복제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메틸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라면, '능동적 탈메틸화'는 이루어져야 하는 탈메틸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즉 전자는 '비정상적인 탈메틸화'이고 후자는 '정상적인 탈메틸화'라고 해도 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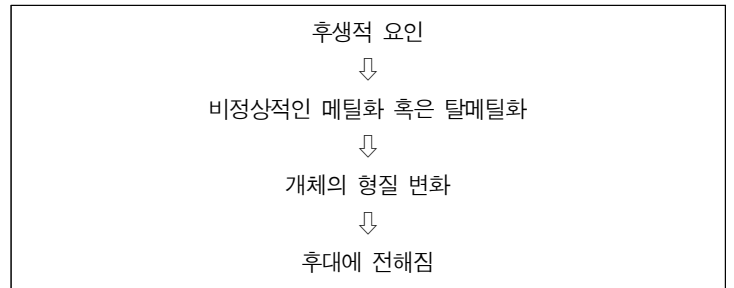
문단5 : 발생계의 변화에 의한 진화

- 1) 일반적으로 생물종의 DNA 메틸화 양상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부모와 자손들의 [발현되는] 형질이 비슷한 양상을 띤다.

⇒ 그렇단다. 부모의 메틸화는 자식의 메틸화로 이어지고, 부모의 탈메틸화는 자식의 탈메틸화로 이어진다는 얘기가. 물론 언제든 그 양상은 새로운 '메틸화'와 '탈메틸화'[→ 특히 다양한 이유로 인한 '수동적 탈메틸화']로 인해 달라질 수 있겠다.

- 2) 그런데 후성 유전학적 연구에 의하면 환경 오염, 영양 결핍, 심한 스트레스 등의 후생적 요인에 의해 한 개체의 발생계 내부에서 비정상적인 메틸화나 탈메틸화가 일어나서[→ 특정 유전자의 발현 여부가 비정상적으로 달라져서] 그 양상이 고착될 수 있고, 그 영향이 그대로 자손에게 전해질 수 있다.

[주목] '유전자의 변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개체의 형질이 달라질 수 있고, 그 영향이 자손에게도 전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문단1-5)를 함께 떠올려야겠다.



- 3) 이 양상[→ 발생계 내부의 변화에 의해 개체의 형질이 변하는 것]이 오랜 기간 누적되면 생물종의 진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20세기 중반 네덜란드에서 심한 기근이 들어 영양 결핍 상태로 태아기를 보낸[→ 후생적 요인] 사람들 중에는 인슐린 대사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이 적절하게 발현되지 못해[→ 개체의 발생계 내부에서 일어난 비정상적인 메틸화] 당뇨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 양상이 후대에도 나타나고 있다.

⇒ 발생계의 변화에 의한 진화의 사례겠다.

문단6 : 진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DNA 메틸화 외에 발생 자원이 특정 환경하에 진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례들이 후성 유전학적 연구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유전자뿐 아니라 외부 환경과 발생 자원들도 진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 무난한 마무리다.

[35~39] 사회 : 리카디언 등가 정리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사회 - 경제학 - 리카디언 등가 정리, 재정 정책

재정 정책, 거시 경제 이론, 케인지언, 조세, 국채, 가처분 소득, 총수요, 시카고학과 경제학자, 리카디언 등가 정리, 이타적인 유산 동기, 차용 제약

* 지문 분석

문단1 : 케인지언들의 주장

1) **재정 정책**은 경기를 안정시키거나[→ 경기 과열의 해결책] 부양하기 위하여[→ 경기 침체의 해결책]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크기를 조정하는 경제 정책으로서 케인즈의 **거시 경제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 뭐 여기까지는 그대로 읽어 주면 되겠다.

2) 케인즈를 추종하는 **케인지언**들은 **조세**를 통해 재정 정책의 재원을 조달하는 것보다 정부 발행 채권인 **국채**를 통해 조달하는 것이 경기 부양에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 아무래도 그 이유가 중요할 텐데

[주목] 여기서는 '경기 안정'이 아닌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정책에 대해서만 살펴보려나 보다.

3)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면 **조세 부담**이 경감되어[→ 조세 수입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지 않기 때문에]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그만큼 더 늘기 때문이다.

⇒ 정부가 세금을 덜 걷으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증가한다는 얘기다. 그렇게 되면

4) 그러면 소비 수준이 높아져 국가의 **총수요**가 늘고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실업률이 낮아지고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 이런 과정을 거쳐 경기가 활성화된단다.

국채 발행 선택 ⇨ 가처분 소득↑ ⇨ 소비 수준↑ ⇨ 총수요↑
⇨ 생산량↑ ⇨ 실업률↓ ⇨ 경기 활성화

[주목] 오해하지는 말자. 재정 정책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 '국채'를 선택하게 되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지. 재정 정책 자체가 항상 경기 활성화를 보장하는 건 아니다.

문단2 : 시카고학과 경제학자들의 비판

1) 정부의 시장 개입을 반대하는[→ 정부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반대하는] **시카고학과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자 리카도의 이름을 차용하여 명명한 '리카디언 등가 정리'를 통해 인[→ 국채를 통한 재원 조달이 조세를 통한 재원 조달보다 경기 부양에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였다.

[팩트 체크] 앞으로 '케인지언'과 '시카고학과 경제학자' 사이의 대립에 주목해야겠다.

2) **리카디언 등가 정리**는 재정 정책에서 재원 조달 방법의 차이는 경제적으로 무의미하다는 것, 즉 조세를 통한 재원 조달과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은 경제적으로 그 의미가 동등하다는 논리이다. 이 논리가 옳다면 국채 발행으로 재정 정책의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케인지언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 결국 핵심은 '리카디언 등가 정리'가 성립하는지에 달려 있겠다. 성립한다면 '시카고학과 경제학자들'의 승리이고, 성립하지 않는다면 '케인지언들'의 승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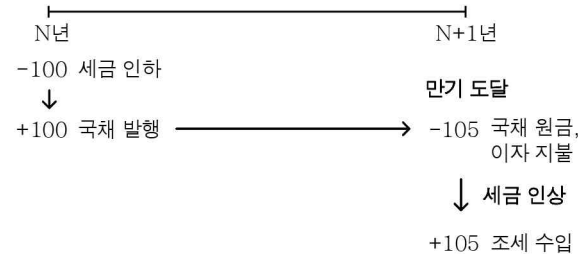
문단3 : 리카디언 등가 정리

1) 정부가 1인당 100원의 세금을 덜 걷고 그로 인한 조세 수입의 감소를 1인당 100원만큼의 국채 발행을 통해서 충당한다고 하자[→ '국채 발행'을 통해 '재정 정책'의 재원을 조달하는 상황].

[팩트 체크] 이해를 돕기 위해 숫자를 단순화하여 '리카디언 등가 정리'의 논리를 살펴보려나 보다.

2) 채권과 예금의 이자율은 연 5%이고 인구 증가는 없다고 가정할 때, 국채의 만기가 1년이라면 조세 감면이 이루어진 다음 해에 정부는 채권의 원금[→ 100원]과 이자[→ 100원 × 0.05]를 지불하기 위해서 세금을 1인당 105원만큼씩 증가시켜야 한다.

⇒ 차근차근 따져보자. 정부 입장에서는 N년에 '1인당 100원만큼의 국채'를 1년 만기로 발행한 셈이니 N+1년에는 '1인당 105원만큼'을 갚아야 한다. 따라서 N+1년에 세금을 '1인당 105원만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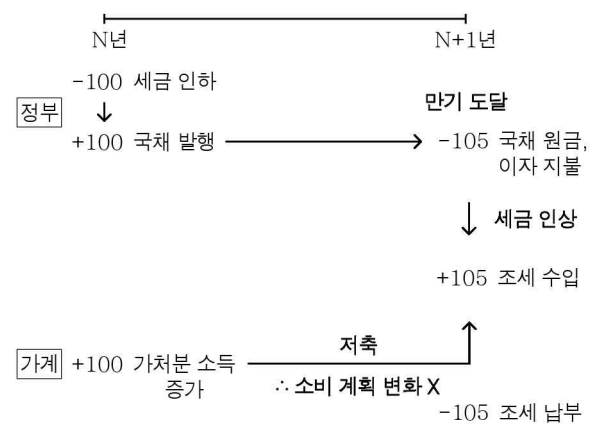
3) 가계는 [N+1년에] 세금이 [1인당 105원만큼] 늘어 **소득**이 감소하게 될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N년에] 100원만큼의 **소비를 줄여 저축을 늘리는 결정**을 할 것이다.

⇒ 따라서 가계는 N+1년에 늘어날 세금에 대비하여 N년에 '저축을 늘리는 결정'을 내린단다. 그런데 이 자체보다는

[주목] 이것이 결과적으로 '소비를 줄이는 결정'이라는 점이 더 중요하겠다. 소비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이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문단1-4)에서의 '케인지언들'의 논리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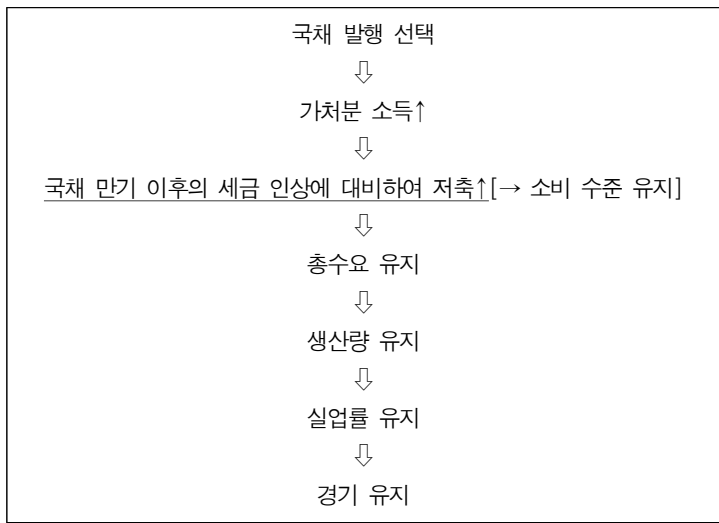
4) 이때 추가적인 저축은 은행 예금의 형태일 수도 있고 국채를 매입하는 것일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다음 해에 정부가 채권 상환을 위해 세금을 105원만큼 증가시킬 때 가계는 채권의 원리금[→ 원금 + 이자 = 105원]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 어떤 방법으로 저축을 늘리든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N년에 100원을 '은행 예금'으로 저축한다면 N+1년에 이자를 더해 105원이 될 테고, '국채 매입'으로 저축한다면 N+1년에 국채의 원리금으로 105원을 받을 테니 말이다.



5) 결과적으로 원래 의도한 소비 계획은 **세계 변화 후에도**[→ N년에 세금이 인하된 이후에도] 달라진 바가 없다. 가계의 행동은 정부가 재정 정책의 재원을 조세로 조달하든지 **부채**[→ 국채]로 조달하든지 간에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이다.

[주목] '재정 정책의 재원을 국채로 조달하는 것'을 선택하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겠지만, 늘어난 가처분 소득 100원은 전부 N+1년에 **증가한 세금**[→ 105원] 납부에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소비 수준' 역시 유지될 수밖에 없다.



⇒ 결국 ‘리카디언 등가 정리’에 의해 문단1-4)의 ‘케인지언들’의 논리는 완전히 뒤집힌 것처럼 보이는데 ……

문단4 : 케인지언들의 반박 1 – 이타적인 유산 동기

- 1) 이러한 리카디언 등가 정리는 사람들이 소비를 결정할 때 정부 부채로 인해 발생할 장래의 소득 감소[→ N+1년의 세금 인상]를 합리적으로 예상한다는 것[→ N년에 미리 예상한다는 것]을 핵심 전제로 삼는다.

⇒ 맞다. 문단3의 ‘리카디언 등가 정리’가 성립하려면 가계는 N년에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N+1년의 세금 인상’을 예상하여 소비 수준을 높이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 2) 그런데 국채의 만기가 매우 길어서 현재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에서야 상황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 그런데 만기가 1년이 아니라 100년 이상이라면? 이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소비를 결정할 때 ‘N+100년의 세금 인상’을 예상하여 저축을 늘리는 선택을 내릴 수 있을까?

- 3) 이 경우에도 리카디언 등가 정리가 성립하려면 소비자가 **이타적인 유산 동기**를 가져야 한다. 즉 자신이 죽은 후에 후손들이 조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매년 소비를 조금씩 줄이고 저축을 늘려서 저축의 원리금 합계가 국채 만기 시의 원리금에 상응하는 유산으로 남겨 줄 동기가 있어야 한다.

⇒ 한마디로 ‘이타적인 유산 동기’는 내가 직접 갚을 필요가 없는 ‘N+100년의 세금 인상’을 대비하여 기꺼이 내 현재의 소비를 줄이는, 어마어마하게 이타적인 동기인 셈인데 ……

- 4) 케인지언들은 소비자들이 이렇게 이타적인 동기를 가진다고 가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본다. 현실에서 사람들은 자식이 없을 수도 있고 자신 이외의 어느 누구의 후생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 맞다. 이견 해도 해도 너무 비현실적이다.

[팩트 체크] ‘리카디언 등가 정리’를 통해 ‘시카고학과 경제학자들’이 제기한 비판에 대한 ‘케인지언들’의 첫 번째 반박이다.

[참조] 물론 누군가가 비현실적으로 이타적이라서 ‘이타적인 유산 동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리카디언 등가 정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든 소비자들이 ‘이타적인 유산 동기’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극히 일부의 소비자만이 이타적인 유산 동기를 갖지 않더라도 해당 소비자들은 세금이 인하되면 기꺼이 소비를 늘릴 테고, 이는 결과적으로 총수요 증가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단5 : 케인지언들의 반박 2 – 차용 제약

- 1) 또한 케인지언들은 국채의 만기가 자신의 생애 안에 도달한다고 해도[→ 문단4-2)와 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소비자들이 소비를 늘리는 선택을 할 동기는 얼마든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팩트 체크] ‘리카디언 등가 정리’에 대한 ‘케인지언들’의 두 번째 반박이다. ‘이타적인 유산 동기’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 국채로 인한 미래의 조세 증가에 대해 후손이 아니라 스스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소비자들이 소비를 늘리게 되는 다른 동기가 있다는 지적이다.

- 2) 예컨대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미래의 나이 든 시기에 상환할 계획으로 젊은 시기에 대출을 받아서 소비를 늘리려는 젊은 소비자가 신용 점수가 낮다는 등의 이유로 원하는 만큼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차용 제약**에 직면할 수 있다.

⇒ 이렇게 소비를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없는 ‘젊은 소비자’가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좋은 소비 습관인지는 모르겠지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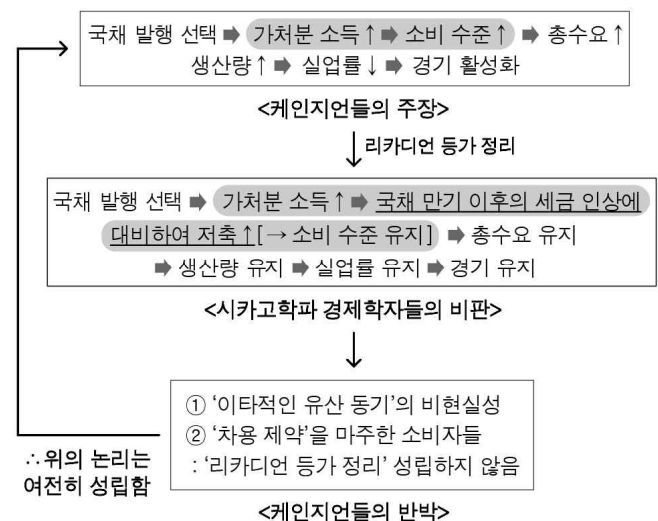
- 3) 이 경우에 현재의 감세[→ 정부가 ‘1인당 100원’만큼의 세금을 덜 걷는 문단3-1)의 상황]은 젊은 소비자에게 있어 소비를 늘리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것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주목] 이런 ‘젊은 소비자’는 감세로 인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난 문단1-3)의 상황을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과 유사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따라서 이들의 경우 기꺼이 저축보다는 소비를 늘리는 쪽을 선택할 거라는 얘기다.

⇒ 결국 ‘리카디언 등가 정리’에 의해 소비자들의 소비 계획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시카고학과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다시 부정된다.

- 4) 이는 리카디언 등가 정리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사례라 할 수 있다.

⇒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겠다.



[43~45] 회곡 : 김우진, 「산돼지」

* 수록 지문 평가

문학사적으로 한국 근대 연극사의 기념비적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신파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1920년대 우리나라 연극계에서 최초로 표현주의 형식을 시도해, 인간 내면의 갈등과 의식 세계를 파고든 근대적 성격의 작품이다. 표현주의 연극이라는 특징 때문에 문학 교과서에 늘 언급되는 작품이므로, 표현주의 연극으로서의 면모가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주목하면서 읽자.

* 수록 지문 분석

들어가기 전

- 1) **산돼지와 집돼지** : 작중에서 주인공 원봉은 남들로부터 산돼지 취급을 받는데, 스스로도 자신을 산돼지라 하고 친구인 차혁을 가리켜 집돼지라 부르는 등 이러한 취급을 받아들인다. 산돼지는 주인공의 저돌적 성격, 기존의 인습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려는 의지 등을 상징한다. 이와 달리 집돼지는 안정되고 평온하며 기존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삶을 상징한다. 원봉은 산돼지의 성향을 지니고 태어났으나, 그의 삶을 둘러싼 환경[→ 집안 환경, 시대적 환경 등]은 산돼지의 자유분방함을 추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여기에서 작가 김우진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인 원봉의 고뇌와 갈등이 발생한다.
- 2) **극 중 동학의 의미** : 주인공 원봉의 친아버지, 그리고 양아버지인 최 주사는 동학과 관련되어 죽고, 원봉의 친어머니 또한 동학군을 진압하려는 관군의 폭압으로 인해 병을 얻은 채 원봉을 낳고 곧 죽는다. 이러한 극 중 상황은 주인공 원봉의 고뇌와 긴밀히 연관을 맺고 있다. 동학으로 인해 원봉은 부모를 잃었고, 또 동학은 외세를 배격하는 운동이었는데 원봉은 신문물을 배운 지식인이라는 점에서, 원봉에게 동학은 식민지 지식인이 짊어져야 할 개인적이지 집단적인 트라우마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이런 면에서 신문물 또한 낡은 인습을 타파할 수 있는 방편이면서, 식민지 조선을 옥죄는 외세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원봉의 고뇌와 갈등은 가족사의 차원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며 시대 배경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 3) **극 중에서 원봉의 몽환** : 이 작품은 인물의 내면적 갈등을 부각하기 위해 표현주의 형식을 사용하였는데, 이 형식이 잘 드러난 것이 제2막이다. 제2막에서 원봉은 몽환에 시달리는데, 이 몽환은 베일에 가려 있는 진실을 암시해 주고, 혼란스러운 원봉의 정신 상태를 엿볼 수 있도록 한다.

[앞부분 줄거리] 산돼지라 불리는 원봉은 동학당이던 친아버지 박정식이 죽고 최 주사 부부를 친부모로 알고 자랐는데, 최 주사의 딸 영순을 좋아하는 친구 차혁과 사이가 좋지 않다. 연인 정숙이 다른 남자와 일본으로 떠나 버린 후 원봉은 병이 들고, 몽환 속에서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보게 된다.

최원봉 : 저기 좀 내려다보렴. 이 하늘을 그리워하면서 모두들 올라오려고 애쓰고 있지 않니?

최영순 : 아 참, 보이는군요. 저런! 저런! 비행기 모양으로 날다가 뚝뚝 떨어지네. 예그 불쌍해! 어머니도 저 속에 있어요? 혁 씨도 저 속에 있어요? [→ ‘저 속’은 수록 지문 앞에 제시된 ‘누런 먼지가 가득히 쌓인 세계’였다. 곧 현실 세계이다.]

최원봉 : 아, 그런 사람들은 생각해서는 못 쓴다니까! [→ 주사 댁이나 차혁에 대한 거부감의 표현이다.]

최영순 : 아, 오빠! 괴로워! 아, 오빠! 나하고 저리로 올라가요. 아, 괴로워! 여기는 다 올라가지 않고 중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괴로운 것 아니에요?

구만리장천 저 위까지 같이 올라가요. 내 손 잡아 줘요! 내가 끌어 올릴 테니! [→ 영순이 순수함을 간직한 존재임을 암시한다. 순수하고 이상적인 세계를 지향하는 영순이다.]

최원봉 : 내 몸이 이렇게 무거운데 어떻게 연약한 네가 날 꼬집어 올리니? 산돼지는 땅 위에서밖에 못 큰단다! [→ 이상향을 지향하지만, 현실의 구속을 벗어나지 못하는 원봉의 현실에 대한 인식의 표현이었다. 이것이 원봉이 지닌 고뇌와 갈등의 원천이며, 이 작품의 주제 의식이기도 하다. 더 거창하게 말하면 봉건적 인습으로부터의 탈피라는 과제와 일체의 강점이라는 굴레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와 갈등이겠다.]

최영순 : 그래도 내 힘껏 끌어 볼 테야. 아 날 놓지 말아요. 이 팔을 꼭 붙들어요. 이 팔을! 아 오빠. [→ 순수한 마음으로 원봉의 고뇌를 해소시켜 주고자 애쓰는 영순의 태도. 원봉이 평소 영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드러난다.]

차혁 : (들어와서 한참 동안 보고 섰다가 그만 달려들어 영순을 꼬집어낸다.) 세상이 말세가 되니까 별별 고약한 것이 다 생기는군! 영순 씨 저 건 당신 오라버니가 아니오? 아 그 눈을 해 가지고도 안 보이오? [→ 원봉과 영순이 부둥켜 있는 모습을 본 차혁의 반응이다. 차혁의 이러한 행동과 말을 통해, 평소 원봉이 혈연관계가 아닌 여동생 영순에 대한 애정 때문에 내적으로 갈등하고 있다는 사실이 암시된다.]

최원봉 : 흥 왔구나. 너무 일찍 온 게 잘되었다. [→ 갑자기 들이닥친 차혁을 보며 원봉이 하는 말이다. 이때 원봉의 속마음을, ① 차혁의 등장을 애석해하는 것으로 읽으면 반어적 표현이겠다. ② 원봉의 발화를 그냥 ‘어차피 겪을 일이라면 일찍 겪는 게 낫지.’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즉 여동생을 향한 혼란스러운 마음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심리의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최영순 : (혁이 가슴에 안기며) 아 선생님! (둘이 안고 나간다.)

⇒ 이미 차혁과 영순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을 갖고 있는 사이임을 알 수 있다. 몽환 장면이므로, 영순의 이런 행동이 원봉의 감정을 어떻게 자극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감상하면 된다. 표현주의란 현실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감정이나 정신 상태를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즉 이 극의 몽환 장면은 불안한 상태에 놓인 원봉이라는 인물의 내면을 무대 위에서 표현한 것이므로, 특정 인물의 말과 행동을 현실의 논리에 따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그런 언행이 원봉이라는 주인공의 내면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으며 또 그의 내면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키는가에 중점을 두고 감상해야 한다. 사랑하는 동생 영순이가 [원봉이 집돼지라며 싫어하는 친구] 차혁과 끌어안고 나가는 모습을 보는 원봉의 심정은 어떨까? 그게 중요한 거다.

(중략)

주사 댁 : 일본에서나 있지 왜 또 뛰어나와서 무슨 낯을 들고 지껄여! 너는 낮가죽도 없니? [→ 원봉을 배신하고 일본으로 떠났던 정숙을 향해 하는 말이다. 뻔뻔하다는 비난이겠다.]

정숙 : (원봉에게) 조선 온 것이,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 잘못된 일이요? [→ 자신이 돌아온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말이다.] 저 여인! [→ 주사 댁] 이 날 저렇게 미워하는 게 영순이 불쌍해서 하는 소리 아니요? 아, 왜 그렇게 외면만 하고 있을 게 뭐야! [→ 원봉을 향한 말이다. 원봉이 외면을 하고 있다고 정숙이 비판적으로 말한다. 여기에서 볼 때 원봉은 자신이 정숙을 외면하는 것에 대해 죄의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당신한테 속고! [→ 정숙은 원봉이 자신을 속였다고 말한다. 현실에서는 정숙이 원봉을 배신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뭔가 다른 사연이 있는 듯하다.] 광은이한테 속아서! [→ 정숙을 일본으로 데리고 간 사람이 광은이다.] 고향 품에 안기려고 온 것

이 그리 못쓸 일ियो? 그리고 나서는 당신에게 사람다운 과실을 용서해 주려고 하는 것이 못쓸 일이야요? [→ 오히려 정숙이 원봉을 용서해 주려 한다고 말한다. 원봉의 내면이 반영된 것을 감안한다면, 원봉은 뭔가 정숙에게 미안한 점이 있을 수도 있다. 자신의 잘못이나 과오를 정숙에게 용서받고 싶을 수도 있다.]

⇒ 계속 원봉의 몽환이 이어지는 중이므로, 주사 덕과 정숙의 대화 역시 원봉의 내면을 반영한다고 이해하는 편이 좋겠다. 원봉이 자신을 배신한 정숙을 아직 잊지 못하고 있기에 몽환에서 정숙이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것이다.

주사 덕 : 저 지껄여 대는 것 좀 봐! 뽀뽀스럽게. [→ 정숙을 향해 하는 말이다.]

최원봉 : 무엇이야! 사람다운 과실을 용서하려고? 누구에게서 그따위 소리를 배웠니? 광은이 따라서 일본까지 갔다 오더니 겨우 그것 배워 가지고 왔구나. 허지만 난 예전 원봉이가 아니다. 벌써 옛날 원봉이는 네 송장과 같이 북망산으로 날아갔어. [→ 자신에게 정숙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로이며, 예전의 원봉도 그와 함께 죽었다는 이야기이다.]

정숙 : 나도 성인 아닌 담에야 내 잘못을 모르는 것이 아니예요.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정숙. 원봉이 마음속으로는 정숙이 잘못을 인정하기를 바라고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나는 내 송장 속에서 다시 살아나려고 해요. 예전 것을 죄다 태우고 그 재 속에서 다시 살아 나오는 새가 되려고 왔어요. 펄펄 날아서 예전에는 꿈도 안 꾸었던 새 나라로 들어가려고 해요. [→ 과거의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다시 태어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내 송장’이라고 했으니, 과거의 자신은 죽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완전하게 단절하겠다는 의미겠다. 그런데 신화에 나오는 불사조처럼 과거의 것을 태운 재에서 살아 나오는 새가 되겠다고 한다. 전혀 다른 삶,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강한 의지가 정숙에게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런 정숙의 말은 원봉의 심리라고도 볼 수 있다. 과거의 나약한 자신에서 벗어나 강한 의지로 현실을 살아가고 싶은 의지가 원봉에게도 있는 것이라 짐작해볼 만하다.] 그래도 모르시겠소? 그만큼이나 당신은 나에게 힘을 주었어요. 끄지 못할 불로 태워 났어요 [→ 원봉이 정숙에게 힘을 주었으며 정숙을 꺼지지 않는 불로 태워 놓았다고 말하는 몽환 속 말에서 원봉이 정숙에게 마음속으로 미련이 있음을 엿볼 수 있겠다.] 그 재 속에서 피어나는 참다운 꽃 [→ 과거의 자신과 단절하고 성취하는 새로운 삶을 당신까지 그렇게 침 뱉어 내버리려고 할 것이 무엇이에요. [→ 정숙은 원봉에게 자신을 냉대하지 말라고 한다. 이 상황을 원봉의 내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두 사람 사이에 감정이 다 소라도 남아 있다고 해석해도 될 것 같다.]

최원봉 : 예전에는 그런 소리를 네가 아니 했었니? 그보다 몇 곱절 곱고 단 말로 날 속여 왔지? 무덤 위에 피는 꽃 [→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뿌리는 무덤 즉 어둠이나 죽음에 이어져 있는 꽃이다. 외면과 내면이 불일치하다는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다.] 이 고우면 얼마나 고울 줄 아니? 네가 아무리 몇백 번 몇천 번 화생(化生)을 해서 곱게 된다더라도 강변에 핀 꽃 [→ 내용상 정숙과 대조적인 여성상인 영순을 가리키는 것으로 짐작할 수도 있겠다.]과는 어렵도 없다. 너 같은 인생의 발자취 [→ 정숙이 살아온 삶을 닳잡아 보고 있는 원봉]가 가서 더럽히지 아니한 애처로운 강변에 피는 꽃을 네가 보거나 했니? 이 송장 속에서 나온 꽃! 썩 발길을 돌이켜서 나가거라! 안 나갔다가는 다시 불 질러 버릴 테니까!

주사 덕 : 애야 곱게 말해라. 지금 와서 싸우면 뭐 이(利) 될 게 있니? [→ 원봉이 정숙을 다그치고, 주사 덕이 원봉을 말리는 상황이다.] 정숙아 나도 사람이다. 사람다운 과실을 가졌구나, 네 말 모양으로. 내가 널 미워한 것은 원봉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던 게지 결코 네가 못쓸 애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단지 밋고도 미운 것은 너를 발길로 내찬 원봉이지!

⇒ 그동안 정숙을 미워했던 것에 대해 주사 덕이 사정을 설명하고 있다. 주사 덕과 정숙이 불화를 끝내는 상황이다. 이 몽환 장면을 다시 생각해 보면, 원봉이 마음속에서 주사 덕과 정숙의 불화가 끝나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정숙 : 그러면 날 용서해 주실 테야요? 아주머니! 이 눈물을 무엇으로 막아야 할지! [→ 정숙과 주사 덕이 화해에 이르는 모습. 아마도 현실의 원봉이 바랐던 장면일 것이다.]

최원봉 : 또 그런 거짓말을! 어머니 당신은 체구 속까지 에고이즘에 독이 들어 있구려. 언제는 정숙이 어머니한테 가서 체면만 차리고 오더니 이제 정숙이 앞에서 현모(賢母) 노릇을 할려고 드는구려. [→ 이기주의에 물들어 있고 이중적이라고 주사 덕을 비난하는 원봉. 작품의 앞부분을 보면, 현실에서 원봉은 원봉과 정숙 사이의 일로 정숙의 어머니를 방문하고 돌아온 주사 덕을 비난한 일이 있다. 그 일이 원봉의 몽환 속에 이처럼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머리를 둘러싸며) 아 영순아! 영순아! [→ 부정적인 상황에 맞닥뜨려 답답한 심정에서 영순을 부르고 있다. 이 행동에서 영순이라는 존재가 원봉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짐작할 수 있겠다.] 왜 벼락이 오지 않니? 왜 벼락이 오지 않니? [→ 벼락이 내려쳐서 싫은 이 상황이 끝나기를 바라는 심정이라고 보인다.]

주사 덕 : (울며) 어떻게 하면 좋으니? 아 너는 나만 가지고 그렇게 골리려 드니, 다 늙어 빠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 모두가 잘못이다. 날 이런 구렁에 집어넣은 것은 시초가 모두 동학인가 무엇인가가 지랄을 했기 때문이구나. 모두 죄를 받으려고 염병이 들어 가지고 살생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나서는 하다못해 죽은 송장에다가 참까지 빨고 있으니 무슨 복이 돌아오겠니?

박정식 : (손에 커다란 못과 장도리를 들고 쫓아 나와 원봉에게 대든다.) 그 산돼지 탈 벗겨져서는 천지개벽이 생기겠다. 이놈! 달아나긴 어딜 달아나! (쫓는다. 주사 덕과 정숙이 손을 잡고 달아난다. [→ 현실이라면 절대 손을 잡을 관계가 아니다. 몽환 속의 인물들이니까 이럴 수 있는 거다.]) 일평생은 그만두고 저승에 들어가서도 벗겨지지 않아야지! 자, 이 못 받아라!

⇒ 기나긴 몽환에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은 동학에 가담했다 처형된 자기 아버지이다. 원봉에게 가장 큰 강박 관념을 불어넣는 인물이다.

⇒ 몽환의 마지막에 나오는 주사 덕과 박정식의 대사에는 원봉이 벗어날 수 없는 두 가지 강박 관념이 담겨 있다. 하나는 출생 시기의 비극적인 역사가 낳은 개인적인 불행이다. 또 하나는 혁명을 지향한 아버지와 혼돈 속에서 무력한 삶을 사는 원봉 자신이 대비되는 데서 오는 자괴감이다.

(무대 급히 어두워졌다가 밝아지면 예전의 병실이 다시 나타난다.)

최영순 : (고민하는 원봉에게 달려들어 이불을 헤치고) 오빠! 오빠! 정신 차려요!

최원봉 : (가슴에 와 닿는 영순이의 손을 밀어내며) 아! 아!

최영순 : 오빠! 잠 깨세요! 오빠!

최원봉 : (눈 뜨며) 영순아! (가쁜 숨)

*** 참고 자료**

동학과 일제 강점기 지식인

이 작품의 갈등 중 중요한 갈래의 하나는 동학당이었던 아버지의 이상을 잊지 못하는 1920년대 청년 지식인인 원봉의 무력감에서 비롯한다. 극 속에서 원봉은 사회와 민족을 위한 개혁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집에 갇힌 산돼지’처럼 주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곁도는 삶을 살면서 독설을 늘어놓을 뿐이다. 이는 1919년 3·1 운동이 비극적으로 좌절된 이후에 조선의 지식인들이 느낀 일반적인 심정을 투영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1926년에 이 작품을 발표한 지 얼마 후에 극작가 김우진이 자살한 사건을 식민지 조선에서 근대적 지식인이 겪어야 했던 고뇌와 좌절을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표현주의 연극의 특징

표현주의 연극은 사실주의 연극과 대척점에 서 있다. 사실주의 연극이 현실 사건을 무대 위에 재현해 보여 주는 것을 지향한다면, 표현주의 연극은 현실 사건에서 ① 개인이 느낀 내면의 정서적 반응을 ②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작품의 제2막에서 현실 세계의 사건보다 원봉의 몽환을 보여 주는 데 집중하는 것이 ①에 해당하는 특징이다. 몽환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원봉의 주관적 정서에 따라 현실 사건 속의 동일 인물들과 전혀 다른 캐릭터로 왜곡되는 점과[→ 예를 들어, 원봉은 현실의 박정식을 본 적도 없으나 몽환 속에서는 박정식이 망치와 못을 들고 원봉을 쫓아다닌다.], 간단한 조명의 변화만으로 결이 다른 몽환을 뒤섞어 보여 주는 점 등이 ②에 해당하는 특징이다.

